

## 일반계 고등학생의 비교과 영역 발달수준 결정요인: 수상경력과 임원경험을 중심으로

유 백 산<sup>1)</sup>

### 요 약

본 연구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확대에 의해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교과 영역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 잠재력 평가 1순위로 꼽은 수상경력(김석우, 2009)과, 자치활동 중 임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였다. 연구결과, 교내 수상여부는 학업성취도, 자기 효능감, 독서향유, 부모학력,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외수상은 학업성취도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 내 진로교육 수준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편, 재학 중 임원경험 여부에는 학업성취도와 자기 효능감, 부모의 학교참여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학업성적이 좋고 가정배경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에서도 높은 성취수준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확보를 위한 정부와 학교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교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교외수상을 제외할 경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내 수상영역과 리더십 평가의 다각화 및 학교차원의 지원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입학사정관제, 비교과영역, 수상경력, 임원경험

## I. 서 문

### 1. 연구의 목적

최근 대학별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대입전형을 확대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Do Dream 특성화전형1’에서 교과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1단계 서류심사 성적 40%와 전공수학능력평가 6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경희대학교 역시 ‘네오르네상스전형’ 서류평가에 학생부 비교과 영역, 자소서, 기타실적 등을 평가하는 잠재역량이 80%, 학생부 교과영역·기타실적을 평가하는 학업적성역량이 20%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아시아 경제, 2010. 09. 01).

1)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 같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배경에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속에 변화하고 있는 인재상이 반영되어 있다. 즉, 표준화된 인간을 양성하여 대량생산하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시되는 지식중심의 사회구조가 요구하는 인재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춘 인간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입시만 집중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의성과 인성을 가진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매일경제, 2010. 05. 18).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기 및 인성 그리고 성장과정 등을 반영하고 있는 비교과 영역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있어 중요한 평가요소로 부각 받고 있다(권승아·성태제, 2009).

그럼에도 현재 학생들의 비교과 영역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국내의 연구는 교과영역에 비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거의 대다수의 연구가 학업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왔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업성취도 중심으로 학생들을 재단해 왔던 종래의 양적평가 패러다임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추세와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제는 비교과 영역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발표하면서, 비교과 영역 중 교과 관련 교외수상 실적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을 사정준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한국교육대학협의회(2010)의 조치는 눈여겨 봄 직하다. 즉,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형요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구성원이 투입한 노력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의 정도인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뿐만 아니라,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나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역시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교육비와 같은 요소들만을 고려하여 비교과 영역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학업 성취도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사회자본이나 학교 차원의 지원과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 역시 충분히 검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비교과 영역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 잠재력 판단 1순위로 꼽은 수상경력(김석우, 2009)과, 임원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가정, 학교 수준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 발달 수준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고, 입학사정관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과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비교과 영역의 개념과 배경

일반적으로 교과영역이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한다면 비교과 영역은 교과 이외의 활동 내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은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지도상황, 창의적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자치, 적응, 행사, 계발, 봉사활동), 체험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되어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의 근본 목적이 전인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생들의 인성 및 성장과정 등을 반영하고 있는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수능과 같은 입시시험을 통한 양적평가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아왔다. 즉, 객관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평가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정작 교육 본연의 목적달성에는 소홀해 왔다. 교과성적이나 수능성적 위주의 평가는 철저히 계량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발달과정과 인성과 같은 질적 요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김성천 외, 2006; 정창우, 2010).

그런데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비단 인성 교육적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과 영역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시스템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창의성과 리더십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955년 문교부 훈령 10호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가 도입된 이후, 비교과영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5년 5·31교육개혁안 이후부터였다. 당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이행, 둘째,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난 교육의 다양화, 셋째,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넷째,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다섯째, 교육의 정보화, 여섯째, 질 높은 교육의 추구를 개혁안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특히, 5.31 교육개혁안은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더불어 통제위주의 교육을 탈피,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세계화·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혁명적인 교육 개혁안이 었다(신현석, 1996).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절대평가와 학년별 과목석차 도입과 함께 진로지도 및 수상경력 등을 기재할 수 있는 기록란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추가하였는데, 이 같은 시도는 바로 급변하는 세계화의 요구 속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면서 전인교육

추구 및 공교육 정상화와 같은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송병순·이영호, 1997).

이 후 교육부는 1998년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나 면접시험 등과 같은 시험 성적 이외에 다양한 전형 요소를 대입 선발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상실, 수능시험에 의존적인 대학들의 학생선발 관행 등으로 비교과 영역은 대입선발 전형 요소로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평가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병순·이영호, 1997). 즉,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적 기능에 충실하고자 절대기준 평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선발 목적인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상대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계량적인 교과나 수능성적 의존적인 선발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의 보완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입학 사정관제(admission officer system)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입학사정관 제도란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의 성적 및 개인 환경 그리고 잠재력과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남보우, 2007).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은 교과 영역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권승아·성태제(2009)에 따르면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토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과 영역은 교과 성적과 같이 계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 평가에 있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최현섭 외, 2005).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마련하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용을 건학 이념, 인재상,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관련 교외 수상실적, 구술 영어 면접, 해외 봉사실적 등과 같은 비교과 영역 전형요소들은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공통기준안에서 제외된 영역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부족하고,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어 대학들의 자율적인 준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요컨대, 교과 영역과 마찬가지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비교과 영역 중 학생 잠재력 판단 1순위로 꼽은 수상경력(김석우, 2009)과, 특별활동 중 임원경험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sup>2)</sup>

## 2. 비교과 영역에 관한 선행연구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은 수상경력이나 진로지도상황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비교과 영역은 교과 영역과 같이 단일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그간 비교과 영역 전체 수준에서의 관심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대입선발 전형 요소로서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김정명, 1997; 권요한·이경렬, 1999; 박성수, 2005; 최형섭 외, 2005; 김재춘 외, 2005; 김성천 외, 2006).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요소로서 비교과 영역의 평가기준 정립에 관심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양성관·김경범, 2008; 김석우 외 2009; 김일혁, 2009; 권승아·성태제 2009; 김수연·김시라, 2009).

요컨대, 비교과 영역의 발달수준이나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은 영역의 포괄성이나 신뢰성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비교과 영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발달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독서 동기 및 태도(정지욱, 2004; 한철우, 2005; 이수영, 2006; 윤준채·김영란, 2008; 박혜숙, 2008)나, 진로의식(문승태·김연희, 2003; 김정숙·황여정, 2007; 차정은 외, 2007; 김강호·정윤경, 2008; 기영락·임성택, 2010), 특별활동 중 계발·봉사·행사(허경숙, 1997; 김정주 외, 1999; 김혜숙, 2002; 조혜영·최창욱, 2008)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수월한 편이다.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인 교내외 수상경력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독립변수 수준(정윤경, 2005; 이수영 외, 2009)에서만 검토되어왔다. 이것은 기존의 양적평가 위주의 대입제도에서 수상경력이 학생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상경력의 범주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다보니 표준화된 학업성취도와는 다르게, 수상여부만으로는 학생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고등학생 자원봉사대회 수상자만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지

2) 김석우 외(2009)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비교과 영역 중 학생 잠재력 판단 순위로 수상경력, 자격증, 독서, 출결, 특별활동을 꼽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일반계 고등학교임을 감안하여 자격증 취득 여부는 제외하였으며, 출석 역시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독서의 경우 기존에 많은 선행연구가 있음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그 결과 수상경력 여부와, 특별활동 중 자료 활용이 가능한 임원활동 경험 유무가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

속성을 분석한 송진오(2009)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자원봉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초등학교 영재교육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영재성 발현조건을 탐색한 권치순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면서 조기에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수상실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장학생(president scholarship)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자기실현, 성실성, 신뢰성과 같은 품행(morality)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amont, et al., 2000).

한편, 특별활동 내 학생 자치활동의 경우 정치참여 의식 등과 관련된 연구(박가나, 2001; 장지숙, 2003; 반희경, 2009)나 자치활동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강순규, 2001; 김경숙, 2002; 정건희 외, 2010) 등을 검토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임원경험 활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간 학생들의 임원활동은 대부분 수상경력과 마찬가지로 성취동기나 학업성취도, 참여의식 등에 대한 독립변수 수준(박성업, 2004; 정윤경, 2005; 박윤경, 2009; 이한나, 2009)에서 다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기타 비교과 영역 발달수준을 검토한 연구들을 참조하여 모형에 투입할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선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독립변수의 수준은 개인, 가정, 학교단위로 압축된다.

우선 개인배경과 관련된 변수들로 성별, 학업성취도, 자아정체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남학생일수록 자원봉사활동시간이 길거나(권순미, 2001), 여학생일수록 학급회의 참여도가 소극적(김경숙, 2002)이라는 보고 등을 통해 성별에 따른 비교과 영역 발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급학교 진학의 주요 지표가 되는 학업성취도와 긍정적인 자아관은 진로의식 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정윤경, 2006; 김경숙·황여정, 2007). 독서동기에 있어서도 개별 독자의 자기 신념 또는 통제력, 호기심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순영, 2006).

다음으로 가정배경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비교과 영역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Pancer and Pratt(1999)에 따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부모 학력은 자녀의 자원 봉사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혜숙, 2002). 이것은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Dauber and Epstein(1993)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정의 문화자본 역시 학생의 직업결정과정과 학생에 대한 교사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의 악기연주 여부나 가족동반 여행경험 등과 같은 가정의 문화자본은 직업포부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전경애, 2001), 가정의 문화자본에 따라 리더십과 같은 교사의 학생인식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영, 2010). 청소년 자치활동의 경우, 가구 소득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공적 참여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정건희 외, 2010). 이외에도 개인이 속하게 되는 최초의 문식세계라 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은 독서 동기 및 몰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Gottfried, et al., 1998; Baker, et al., 2000).

마지막으로 학교관련 변수로는 학교 풍토, 교사의 지원정도, 진로교육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진로성숙도와 관련하여 학교풍토나 학교 내 진로상담 경험 등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영숙, 1998; 김정숙·황여정, 2007). 또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 성과요인을 분석한 허경숙(1997)에 따르면, 학교시설 및 교사의 지도능력 등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 시간이 많고(권순미, 2001), 부모와 교사의 지지정도에 따라 봉사활동 지속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중·엄성호, 2002).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Korean Educational and Employment Panel) 4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KEEP조사는 기준년도인 2004년도에 중학교 3학년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각각 2,000명씩을 조사대상 패널로 선정, 매년 추적 조사하였으며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제공 등을 목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4차(2007)년도에는 1차년도 학생들의 추적조사에 더하여 기준(2004)년도의 중학교 3학년생 대표집단(Cohort)에 전문계(실업계)고 1,000명, 특목고 600명을 추가하여 표집 조사하였으며 학생의 가구, 담임,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년도 인문계 고등학생 1,583명 중 해당 없음을 제외한 1,579명의 학교 및 가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 2. 변수설명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종속변수인 교내외 경시대회 또는 경연대회 수상여부와 관련하여 수상 경험자에게 1, 비경험자에게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속변수인 학생회 임원 또는 학급의 회장, 부회장 경험과 관련해서도 임원 경험자에 1의 값을, 임원 비경험자에 0의 값을 지정하여 비경험자에 비해 경험자 집단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로는 1단계 모형에서 성별, 학업성취도, 자기 효능감, 독서향유와 같이 학생배경을 반영한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성별은 더미변수로서 여성이면 0, 남성이면 1의 값을 부여

하였고, 학업성취도는 '06년도 학생 성적등급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측정한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로 묻고 있는 6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중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한다.' '내가 계획한 것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19였다. 학생의 문화자본 중 하나인 독서 향유는, 독서에 대한 태도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는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책을 선물로 받을 때 기쁘다' 2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투입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77이다.

2단계 모형에서는 학생의 가정배경을 반영한 변수로 가구소득, 사교육비, 문화생활비,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학교 참여도,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이 투입되었다. 가구소득, 사교육비, 문화생활비는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 사교육비, 문화생활 관련 지출비용을 측정한 문항으로 편포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각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부모학력은 교육연한으로 변환, 부모의 학력이 모두 조사된 경우에는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값을 투입하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조사된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투입하였다<sup>3)</sup>.

부모와의 관계는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5점 척도로 묻고 있는 질문 중, 총 6개 문항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하셨다.' '칭찬이나 별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였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952였다.

부모의 학교 참여도는 선생님과 상담이나 학교홈페이지 이용 빈도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는 4개 문항의 응답을 평균하여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학업 성적 상담', '진학 및 진로 상담', '생활지도 상담', '학교 홈페이지 접속·이용'이었으며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8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모형에 투입하였다.<sup>4)</sup>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면학분위기, 담임교사의 지원정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소재지가 투입되었다. 면학 분위기는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수업시간 분위기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는 4문항의 평균값을 역으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이 많다.'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많다.'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많다.'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이 많다.'로 이들 4문항의 신뢰

3) 부모의 학력수준을 교육연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학 0, 초등학교 졸업 6, 중학교 졸업 9, 고등학교 졸업 12, 전문대졸 14, 대졸 16, 대학원 석사 졸업 18, 대학원 박사 졸업에 21의 값을 부여하였다.

4)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의 교육연한으로의 변환은 부모학력 수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였으나, 전문대의 경우 최근 3년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14.5의 값을 부여하였다.

도(cronbach's  $\alpha$ )는 .667이었다. 담임교사의 지원정도는 학생들에 대한 담임교사의 태도 및 학업적 지원정도를 5점 척도로 묻는 4문항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신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이해하신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신다.'였으며, 이들 4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2였다.

다음으로 진로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 경험 유무로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 여부를 측정된 각 문항의 학생 응답을 합산하여 최소 0에서 최대 6의 값을 갖는 연속변수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내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유무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에 대한 학생 응답을 합산, 최소 0에서 4의 값을 갖는 하나의 연속변수로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학교소재지는 서울 외 16개 지역으로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측정된 문항을, 서울과 지방으로 재범주화하여 서울에 1의 값을 지방에 0의 값을 부여, 더미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최종 모형에 투입한 상호작용 항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을 살펴보기 위해 투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한 후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하단의 <표 1>는 상술한 변수들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투입된 변수의 정의 및 기술통계치

변수	정의	평균(표준편차)
<b>종속변수</b>		
수상경력	고교 재학 중 교내 수상경력 경험 (=1)	.216(.412)
	고교 재학 중 교외 수상경력 경험 (=1)	.165(.372)
임원경험	고교 재학 중 임원활동 경험 (=1)	.248(.432)
<b>개인배경</b>		
성별	더미변수; 남학생 (=1)	.463(.498)
학업 성취도	'06년도 성적등급을 역으로 코딩한 값	5.921(1.475)
자기 효능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3개 문항 평균 값)	3.431(.659)
독서 향유	독서에 대한 태도(관련 2개 문항 평균 값)	3.270(.918)
<b>가정배경</b>		
가구소득	월평균 가계소득(자연로그)	5.832(.625)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자연로그)	3.030(1.807)
문화생활비	월평균 가족 문화 생활비(자연로그)	1.920(1.303)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교육연한	13.546(2.919)
부모와의 관계	가정의 사회자본(관련 6개 문항의 부모 평균값)	3.498(.593)
부모의 학교 참여도	부모의 학교 참여도(관련 4개 문항의 평균값)	1.562(.583)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 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 수준(교육연한)	17.174(2.142)

변수	정의	평균(표준편차)
<b>학교배경</b>		
진로 교육 수준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지도 경험(관련 6개 문항 합산 값)	2.654(1.468)
면학분위기	학교 수업시간 분위기 (관련 4개 문항 평균값을 역으로 코딩한 값)	3.325(.622)
담임교사의 지원정도	담임교사의 학생 지원정도(관련 4개 문항 평균 값)	3.118(.792)
교사와의 관계	학교 내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관련 4개 문항 합산 값)	2.669(1.420)
학교 소재지	더미변수; 서울 (=1)	.205(.404)
<b>상호작용(interaction)</b>		
가구소득*부모학력	가구소득 수준과 부모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887(2.947)
가구소득*학업성취도	가구소득 수준과 학업성취도와의 상호작용 효과	.083(.927)
가구소득*교사와의 관계	가구소득 수준과 교사와의 관계의 상호작용 효과	.072(.319)
가구소득*부모학력*교사와의 관계	가구소득 수준과 부모학력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317(1.636)
가구소득*학업성취도*교사와의 관계	가구소득 수준과 학업성취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031(.467)

### 3. 결측치 처리

종래에는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결측이 관측되었을 경우, 관련된 사례를 모두 제거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통해 결측치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통계적 검증력을 약화시키고 모수 추정에 편의(bias)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Little and Rubin, 2002, 강민아·김경아, 2006). 완전제거법을 통해 결측치를 처리할 경우, 본 연구에서 표본 수는 최대 470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측 발생의 메커니즘이 임의결측(missing at random)이라는 가정 하에,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사용하였다. 다중대체법은 대체가능한 값들의 분포에서 추출한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 2개 이상의 완전한 데이터 세트를 만든 후 이들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중대체 횟수는 비용효과성을 고려했을 때, 3회에서 10회가 무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ne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총 5회의 대체를 반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인 교내외 수상경력과 임원경험 유무는 1과 0의 값을 갖는 이분변수인 관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자료인 KEEP 4차년도 데이터는 학생들이 학교에 속하는 내재적 구조(nested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4차년도 자료의 경우 각 학교당 학생 수가 매우 적어(학교 평균 3명) 학교 수준에서 산출된

계수 값들이 대표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up>5)</sup>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전체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외에서 수상할 승산(odds)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다음단계에서는 종속변수를 임원경험 유무로 바꾸어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분석을 반복, 임원활동을 경험할 승산에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통계분석에서는 SPSS 19.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IV. 분석 결과 및 해석

### 1. 교내외 수상경력 결정요인 분석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연구의 분석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모형 I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투입하였고, 모형 II에서는 부모 학력이나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가정배경 변수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모형 III에서는 학교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최종 모형 IV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을 살펴보기 위한 상호작용 항들이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모형 I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독서향유, 자기효능감이  $p < .001$  수준에서 교내 수상경험에 정적(positive)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수상자들의 영역 분포가 대부분 국·영·수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업성취도 수준이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교내 수상에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sup>6)</sup> 자기 효능감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고3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재학 중 수상경험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줬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선행연구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자신감과 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수상자들의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외 수상경험과 관련해서는 독서향유와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업성취도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효과는 부정(negative)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교외수상을 통해 보상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학

5) 1차년도 조사대상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2,000명)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집단의 표본 수(4,00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표집 되었으며, 표본 탈락과 더불어 졸업 후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 등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기존 표본수가 상당수 감소하였다.

6) 수상자들의 수상영역 분포를 살펴보면(중복수상 포함) 교내수상의 경우 논술·작문(32.6%), 영어·외국어(31.7%), 과학(22.9%), 수학(15.5%), 기타(11.7%), 미술(5.9%), 체육·무용(5.3%), 컴퓨터(4.1%), 음악(3.8%), 기술·기능·영농(.3%), 게임·바둑(.3%)으로 나타났고, 교외수상의 경우 논술·작문(21.8%), 기타(18.8%), 과학(17.2%), 영어·외국어(14.9%), 미술(12.3%), 체육·무용(10.7%), 수학(8%), 음악(6.5%), 컴퓨터(3.8%), 기술·기능·영농(1.1%), 게임·바둑(.4%) 순이었다.

업성취도 수준은 가정배경이나 학교배경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학생배경 변수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형에서는 교내외 수상경험과 관련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모형 II에서는 가정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가정배경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통제된 결과, 이전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성별과 학업성취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교외수상 경험과 관련하여  $p < .05$  수준에서 식별되었다. 즉, 성별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교외에서 수상할 승산이 .739배( $\text{exp} = (-.302)$ )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예체능 계열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예체능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교외수상에서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전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독서향유의 경우 교외수상 경험에 있어 그 효과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향유가 교외 수상경력에 그 자체로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정배경과 관련된 변수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 모형 I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변수들의 효과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가정배경 변수 중에는 부모의 학력과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이 교내외 수상경력과의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이 1년 높을수록 교내외 수상할 승산이 각각 1.249배( $=\text{exp}(.222)$ ), 1.223배( $\text{exp} = (.201)$ )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는 1.052배( $=\text{exp}(.051)$ )와 1.108배( $=\text{exp}(.102)$ )였다. 즉, 교내외에서 수상할 승산에는 기타 비교과 영역을 검토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과 기대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교외 수상경력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보상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과정에서 부모의 학력이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가정의 문화생활비는 교외 수상여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교내 수상여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같은 문화생활비에 따른 교내외 수상여부의 차이는 수상자들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독서향유와 같은 문화자본의 경우 학업성취도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문화 활동 참여와 같은 형태의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Kimet al., 2006; 김경근·변수용, 2007). 즉,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는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학업성취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내외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교외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이 수상할 승산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문화 활동 참여는 수상여부에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외수상에 있어서도 국·영·수 영역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요컨대, 가정의 문화생활 수준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교내외 수상을 통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에서 새로 투입된 가구소득은 교내외 수상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외에 사교육비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학교 참여도는 교내수상과 부적인 관계로, 교외수상에서는 정적인 관계로 드러났으나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가구의 사교육비와 부모의 학교 참여도가 가정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입학사정관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 이들 부모는 교내 경시 및 경연대회 수상보다는 교과나 수능성적에 좀 더 무게를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김수연·김시라(2009)에 따르면 기존에는 교외 상만이 실재 대입전형요소로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로 교외수상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교 참여도나 사교육비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부모와의 관계의 경우, 본 연구의 측정 문항은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등으로 가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부모의 애착 등을 반영하고 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개인 및 가정배경 수준이 동일할 때 수상 여부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와 부모 관계의 중요성은 임원경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모형 III은 교사의 지원이나 면학분위기와 같은 학교배경 변수들이 교내외 수상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학교배경 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이전 모형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던 변수들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별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배경과 관련된 변수 중 진로교육수준은 교내외 수상여부와 모두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교외 수상여부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수준은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진로 체험 및 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외 수상의 경우 논술·작문에 이어 기타 영역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교육 정보가 교외 수상 준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면학분위기와 담임교사의 지원 변수는 본 연구에서 통제의 목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개인 및 가정 배경 변수들을 투입한 상태에서 면학분위기와 담임교사의 지원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되지 않았다. 한편, 학교 내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는 교내외 수상여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존경하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의 존재가, 관련 과목의 흥미나 관심 또는 진로지도 등으로 이어져 교내외 수상실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 학교가 서울에 위치할 경우, 교내수상은 부적으로 교외수상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교육열이 지방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은 대학입시준비에 있어 교내외 수상경력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준비를 통해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레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을 확

인하기 위해 가구소득 수준과 부모학력,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교내외 수상여부와 관련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2〉 교내외 수상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model I				model II			
	교내		교외		교내		교외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절편(intercept)	-6.415*** (.131)	.002	-4.533*** (.515)	.011	-11.319*** (1.249)	.000	-9.144*** (1.193)	.000
<b>학생배경</b>								
성별	-.115 (.131)	.892	-.181 (.142)	.835	-.207 (.148)	.813	-.302* (.153)	.739
학업 성취도	.316*** (.048)	1.371	-.046 (.048)	.955	.277*** (.050)	1.320	-.107* (.050)	.898
자기 효능감	.532*** (.102)	1.703	.672*** (.110)	1.958	.450*** (.110)	1.568	.623*** (.119)	1.865
독서 향유	.405*** (.075)	1.500	.267*** (.079)	1.305	.361*** (.077)	1.435	.194* (.082)	1.214
<b>가정배경</b>								
가구소득					.217 (.195)	1.242	.098 (.192)	1.103
사교육비					-.064 (.052)	.938	.005 (.059)	1.005
문화 생활비					.018 (.074)	1.018	-.210* (.081)	.811
부모의 학력수준					.051^ (.030)	1.052	.102** (.037)	1.108
부모와의 관계					-.008 (.122)	.992	.023 (.129)	1.023
부모의 학교 참여도					-.045 (.159)	.956	.137 (.171)	1.147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					.222*** (.037)	1.249	.201*** (.040)	1.223
<b>학교배경</b>								
진로 교육 수준								
면학분위기								
담임교사의 지원정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 소재지								
<b>상호작용(interaction)</b>								
가구소득*부모학력								
가구소득*학업성취도								
가구소득*교사와의 관계								
가구소득*부모학력*교사와의 관계								
가구소득*학업성취도*교사와의 관계								
Model x2 <sup>7</sup> )	135.343***		59.270***		217.427***		135.658***	
-2likelihood	1512.847		1356.607		1430.763		1280.653	
Nagelkerke R2	.127		.062		.199		.139	
N	1579		1579		1579		1579	

^p<.10. \*p<.05. \*\*p<.01 \*\*\*p<.001

〈표 2〉 교내외 수상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계속)

	model III				model IV			
	교내		교외		교내		교외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절편(intercept)	-11.806*** (1.303)	.000	-9.292*** (1.243)	.000	-7.270*** (.929)	.001	-7.208*** (1.041)	.001
<b>학생배경</b>								
성별	-.132 (.152)	.876	-.275^ (.159)	.760	-.131 (.153)	.877	-.285^ (.160)	.752
학업 성취도	.271*** (.051)	1.312	-.122* (.051)	.886	.272*** (.051)	1.313	-.118* (.053)	.889
자기 효능감	.409*** (.112)	1.505	.576*** (.121)	1.780	.404*** (.113)	1.498	.578*** (.121)	1.782
독서 향유	.336*** (.078)	1.399	.163* (.082)	1.177	.331*** (.078)	1.392	.160^ (.083)	1.173
<b>가정배경</b>								
가구소득	.225 (.198)	1.252	.112 (.195)	1.118	.210 (.221)	1.234	.003 (.218)	1.003
사교육비	-.062 (.053)	.940	-.002 (.060)	.998	-.059 (.054)	.943	.000 (.060)	1.000
문화 생활비	.012 (.076)	1.012	-.213** (.080)	.808	.010 (.076)	1.010	-.215** (.080)	.806
부모의 학력수준	.056^ (.029)	1.057	.108** (.036)	1.114	.058^ (.030)	1.060	.111** (.037)	1.117
부모와의 관계	-.118 (.128)	.889	-.072 (.135)	.931	-.113 (.129)	.893	-.056 (.136)	.945
부모의 학교 참여도	-.075 (.162)	.927	.113 (.117)	1.120	-.075 (.161)	.928	.114 (.180)	1.120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 수준	.213*** (.038)	1.238	.194*** (.041)	1.214	.212*** (.038)	1.237	.194*** (.042)	1.214
<b>학교배경</b>								
진로 교육 수준	.068 (.047)	1.070	.129* (.050)	1.137	.070 (.047)	1.073	.132** (.051)	1.141
면학분위기	.156 (.116)	1.169	.009 (.122)	1.009	.154 (.116)	1.166	.004 (.122)	1.004
담임교사의 지원정도	-.011 (.094)	.989	-.013 (.102)	.987	-.018 (.095)	.983	-.024 (.103)	.976
교사와의 관계	.752*** (.231)	2.122	.686** (.252)	1.986	.709** (.247)	2.031	.524^ (.268)	1.689
학교 소재지	-.050 (.170)	.951	.139 (.174)	1.149	-.060 (.169)	.942	.138 (.175)	1.148
<b>상호작용(interaction)</b>								
가구소득*부모학력					NS(non-significant)	NS		
가구소득*학업성취도					NS	NS		
가구소득*교사와의 관계					NS	NS		
가구소득*부모학력*교사와의 관계					NS	NS		
가구소득*학업성취도*교사와의 관계					NS	NS		
Model x2	236.124***		153.447***		238.144***		158.624***	
-2likelihood	1412.065		1262.430		1410.046		1257.252	
Nagelkerke R2	.212		.156		.216		.161	
N	1579		1579		1579		1579	

^p<.10. \*p<.05. \*\*p<.01 \*\*\*p<.001

7) 본 연구에서 다중대체분석을 위해 사용한 SPSS 19.0 프로그램에서는 모형 적합도에 대한 통합(pooling)값을 제시해 주지 않는 관계로, 대체 자료셋 5개의 평균값을 기재하였다.

## 2. 임원경험 결정요인 분석

상술한 내용을 통해 교내외 수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배경 변수들을 검토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종속변수를 임원경험 유무로 바꾸어 이전에 수행했던 분석을 반복해 보았다. 먼저 모형 I 에 학생 개인 배경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교내외 수상여부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독서향유는 임원경험 여부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식별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 중 학생들의 임원 경험이 대학들의 ‘리더십 전형’의 평가 요소 등으로 활용되지만, 학업성취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학급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대변해 주는 변수를 투입하여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임원을 지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과정에서 학업성취도가 학생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역시 임원 경험에 있어 중요한 특성임이 드러났다.

다음으로 모형 II에서는 가정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이전에 투입했던 변수들의 효과가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투입된 변수 중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학교 참여도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이 임원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이외에 부모학력은 정적인 관계로, 가구소득과 문화생활비 그리고 사교육비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원 경험이 부모의 기대나 학교 참여도와 같은 가정차원의 지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상대적으로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이 낮거나 맞벌이로 학교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학교 내 임원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생활비와 사교육비가 임원경험 여부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은, 가정의 문화 활동이 잦거나 사교육 참여가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 수상여부에서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임원경험 여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눈여겨 볼 직하다. 즉, 가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 등이 학생의 임원 경험 여부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areau(2003)는 미국의 중산층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토론과 같은 양육방식을 통해 권리의식(sense of entitlement)을 체득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중산층 아이들은 성인들과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추구하고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비록 학교배경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지만,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교우관계 및 리더십 함양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 III에서는 학교 배경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이전 모형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었던 변수들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배경과 관련된 변수들을 매개로 임원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 투입된 변수 중에서는 교사와의 관계만이  $p < .001$  수준에서 임원여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미 있는 교사의 존재가 학교 내 활동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들과 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임원경험에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통제의 목적으로 투입한 면학분위기와 담임교사의 지원정도는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되지 않았다. 학교소재지는 임원여부와 정적인 관계로, 진로교육 수준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진로교육 수준의 경우 조사시점이 입학사정관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진로교육을 받은 학생일수록 교외수상과 같이 좀 더 가시적인 커리어 축적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최종 모형 IV에서는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수상여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식별되지 않았던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사이의 이차 상호작용 항과 가구소득, 부모학력, 교사와의 관계 사이의 삼차 상호작용 항의 통계적 유의성이 새롭게 감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부모의 학력도 높은 학생들이, 임원을 지내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가구의 자녀들이 교사와의 관계도 좋을 경우 임원을 경험할 승산이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객관적인 평가에 입각한 수상경력보다 학급 동료나 담임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되는 임원경력은 가정배경과 교사와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표 3〉 임원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절편(intercept)	-5.125*** (.468)	.006	-7.596*** (1.085)	.001	-7.595*** (1.114)	.001	-4.983*** (.878)	.007
<b>학생배경</b>								
성별	.137 (.123)	1.147	.066 (.128)	1.068	.091 (.133)	1.096	.088 (.133)	1.092
학업 성취도	.306*** (.045)	1.358	.274*** (.046)	1.315	.264*** (.047)	1.302	.272*** (.048)	1.313
자기 효능감	.547*** (.096)	1.728	.449*** (.101)	1.566	.407*** (.102)	1.503	.409*** (.104)	1.505
독서 향유	.054 (.068)	1.055	-.010 (.070)	.990	-.024 (.071)	.976	-.030 (.072)	.970
<b>가정배경</b>								
가구소득			-.058 (.169)	.944	-.043 (.170)	.958	.028 (.193)	1.029
사교육비			-.014 (.046)	.986	-.017 (.047)	.983	-.015 (.047)	.985
문화 생활비			-.049 (.064)	.952	-.052 (.063)	.949	-.054 (.063)	.947
부모의 학력수준			.036 (.030)	1.036	.034 (.030)	1.034	.038 (.030)	1.039
부모와의 관계			.248* (.113)	1.281	.179 (.118)	1.196	.190 (.118)	1.210
부모의 학교 참여도			.380** (.124)	1.462	.370** (.126)	1.448	.371** (.126)	1.449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 수준			.101* (.040)	1.106	.093* (.043)	1.097	.091* (.043)	1.095
<b>학교배경</b>								
진로 교육 수준					-.028 (.044)	.973	-.022 (.044)	.979
면학분위기					.044 (.106)	1.045	.038 (.107)	1.039
담임교사의 지원정도					-.019 (.086)	.981	-.030 (.087)	.971
교사와의 관계					.815*** (.208)	2.260	.746*** (.224)	2.087
학교 소재지					.055 (.158)	1.056	.055 (.159)	1.057
<b>상호작용(interaction)</b>								
가구소득*부모학력							.065^ (.034)	1.067
가구소득*학업성취도							NS	
가구소득*교사와의 관계							NS	
가구소득*부모학력*교사와의 관계							.168^ (.101)	1.183
가구소득*학업성취도*교사와의 관계							NS	
Model x2	97.635***		144.023***		161.988***		168.385***	
-2likelihood	1673.036		1626.649		1608.684		1602.287	
Nagelkerke R2	.089		.129		.145		.149	
N	1579		1579		1579		1579	

^p<.10, \*p<.05, \*\*p<.01 \*\*\*p<.001

## V. 결 어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교육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창의적 인재를 육성, 이들을 평가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교육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양적평가 위주의 대입제도에서 소외받아왔던 비교과 영역은, 교과 영역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비교과 영역은 교과영역과 같이 계량적 지표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 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정성이 분배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때(Folger, et, al., 1992),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일반계 고등학생 3학년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영역 중 수상경력과 임원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연구 결과는 교과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상경력이나 임원경험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력과 기대교육 수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원경험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교 참여도가 높고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유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의 경우 교내 수상경력과 임원경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교내에서 수상을 하고 임원을 지낼 승산도 높았다. 다만, 교외수상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수상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학력과 기대교육 수준 등이 낮은 가정배경 출신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도 성취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연구대상이 수상경력과 임원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연구 결과를 비교과 영역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잠재력 평가라는 미명하에 분배적 공정성만을 강조할 경우, 이러한 가정배경 출신 학생들이 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교외수상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보상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교과관련 교외수상실적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2010)의 조치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입학사정관제의 목적 중 하나가 시험위주의 획일화된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도구과목 중심의 교내수상 위주의 평가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타 통로를 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일수록 교외에서 수상할 승산이 높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예체능과 같은 기타계열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요컨대, 현 입학사정관제는 평가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의

‘잠재력 평가’라는 쉽게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목적 모두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 영역 중 학생들의 교내외 수상경력 및 임원경험에 대한 평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내 경시 및 경연대회의 경우 도구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는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재능을 갖춘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급 내 동료나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임원경력의 경우 가정배경 및 교사와의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임원경험이라는 것이 리더십의 단순한 방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해 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정배경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더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 평가의 기준이 다각화 되어야하며<sup>8)</sup> 학생들이 조기에 다양한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과 같은 가정배경 수준의 격차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학교 내 진로지도 및 교사차원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성화 되어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인 정착 과정에 일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관계로 수상 및 임원 경험 횟수와 같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검증된 성별을 구분하여 비교과 영역 발달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자료의 한계로 다층모형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학교 수준의 분산을 추정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학교 수준에 따른 질적인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상경력 및 임원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변수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일부 변수만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만으로 수상경력 및 임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전부 구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모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김일혁(2009)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실태 보고에 따르면, 2009년에는 건국대, 경북대, 성균관대 등이 ‘리더십 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활동한 학생으로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참고문헌 ❖

- 강민아·김경아(2006). “행정학 및 정책학 조사연구에서 결측치 발생과 처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40(2), 31-52.
- 강순규(2001). “중학교 자치활동 운영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명(1997). “학생생활기록부 내의 청소년활동 기록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 51-58.
- 김수연·김시라(2009). “입학사정관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성적 평가 모형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3, 35-59.
- 김일혁(2009). “입학사정관계 운영 평가지표 개발.” 교육평가연구, 22(3), 681-715.
- 김석우·황해익·김아영·김수연·김성숙(2009).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대학입학사정관계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법 고찰.” 교육평가연구, 22(3), 587-614.
- 김재춘·설현수·손종현(2005). 교사별 학생평가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성천·박종희·최현섭(2006). 학생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에 대한 교사와 대학입학관계자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14(1), 233-259.
- 김정숙·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1-23.
- 김강호·정윤경(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과 영향변인. 제 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경숙(2002). “중학생의 자치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혜숙(2002).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 김정주 외(199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종·엄성호(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속성 영향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11, 59-95.
- 권승아·성태제(2009).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실태와 입학사정관계의 인식.” 교육연구, 47(1), 95-118.
- 권요한·이경렬(1999).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도입·운영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 창원대 학생생활연구, 12, 33-61.
- 권치순·김재영·강완·김갑수·유주선(2009). “초등과학 영재교육 대상자의 후속학습의 연계와 영재성 발현에 관한 연구.” 과학영재교육, 1(1), 13-25
- 기영락·임성택(2010). “전문계 고등학생의 부모 관계와 진로성숙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9(1), 63-80.
- 권순미(200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2007. 6). 입학사정관계 도입을 위한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 7). 학교생활기록부 우수기재 매뉴얼.
-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
- 남보우(2007). 대학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종합의견. 대학입학사정관제워크숍 ISB 2007-4-2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문승태·김연희(2003). 고등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16(2), 1-16.
- 박소연(2010). “입학사정관제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전형자료 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수(2005. 8). 대학은 왜 생활기록부를 믿지 않는가. 월간 좋은교사. 서울: 좋은교사.
- 박성업(2004). “고등학생들의 학교급별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가나(2001). “학생 자치활동 참여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희경(2009). “중학생의 자치활동이 민주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경(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 박혜숙(2008). “시간에 따른 중학생의 독서태도, 독서습관, 독서시간과 국어성취도와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9(3). 27-49.
- 송병순·이영호(1997). 학생생활기록부와 대학의 자율성. 한국교육연구, 4, 7-15
- 송영숙(1998). 고등학교 진로포부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오(2009). “청소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수상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석(1996).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정치학: 5.31 교육개혁안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연구, 3(1), 92-122.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8(2), 47-83.
- 양성관·김경범 (2008).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침서 개발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윤준채·김영란(2008). “중학생 독자의 독서태도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3, 159-184.
- 이한나(2009). “청소년의 학생회 임원활동 참여와 법의식 관계 조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이영민·이재훈(2009)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전공계열 진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7(2), 1-25
- 이순영(2006).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어교육학회, 26, 403-425.
- 장지숙(2003). “자치활동 경험이 정치 효능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한국사회학회, 259-305
- 정건희·김유나·최윤진(2010). “청소년자치활동의 실태 및 현황 분석.” 청소년학연구, 17(1), 53-83.
- 정창우(2010). “인성 교육에 대한 성찰과 도덕과 교육의 지향.” 한국윤리학회, 77, 1-33.
- 전경애(2001), “가정의 문화자본이 학생의 직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욱(2004). “비교과 활동으로서의 독서지도 실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영·최창욱(2008). “청소년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차정은·김아영·이은경·김봉환(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21(4), 923-944.
- 최은영(2010). “문화자본이 중학교 수행평가 성적과 교사의 학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섭 외(2005).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신뢰 제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철우(2005). “학교독서지도의 방향과 과제.” 독서연구, 14, 9-3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7). 대학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4).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 허경숙(1997).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 운영실태 및 성과 결정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ker, L., Dreher, M.J., and Guthrie, J.T.(2000) Engaging Young Readers: Promoting Achievement and Motivation,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Barness, S.A., S.R. Lingborg and J.W. Seaman(2006).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 in small sample clinic trials. Statistics in medicine, 25. 233-245.
- Dauber, S.L., and Epstein, J.L.(1995). Parents’ attitudes and practices of involvement in inner city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Chavkin, Nancy Feyl. Families and schools in a plastic socie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olger, R., M. Konovsky, and R. Cropanzano, A.(1992) Due process metaphor for performance appraisal. Greenwich, CT: JAI Press.
- Gottfried, A.E., Fleming, J.S., and Gottfried, A.W(1998). Role of cognitively stimulating homeenvironment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9, 1448-1460.
- Lamont, M., Kaufman, J., Moody, M.(2000). The Best of the Brightest: Definitions of the Ideal Self Among Prize-Winning Students, Sociological Forum, 15(2), 187-224.
- Lareau, A(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ncer S. Mark and Pratt M. W.(1999). In Yates Miranda, Youniss James. Roots of Civic Identity : International Perceptives on Community Service and Active in Y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D.B.(1987). Multiple imputa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ew York: Willey.
- Kim, K.-k., S.-y. Byun and Y.-G. Lee(2006). Cultural capital and school achievement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U.S.A.

아시아경제(2010. 09. 01). “입학사정관제 ‘두 가지 길.’”

메일경제(2010. 05. 18). “초중고생 학습부담 20% 줄인다.”

**❖ Abstract ❖****Determinants of Extra-Curriculum Field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High-Schooler's Award Records and Experience of Official**

BaekSan Yu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awards record which was identified by Korean high school teachers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evaluating a student's potential (Kim et al., 2009) and the experience of officials in school with the aim of showing the inequality in the social structure that is inherent in the extra-curriculum field and presenting a more rational alternative for selecting students in admission officer 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higher levels of parents' education and parents' expectation on the student strongly correlated with probability of receiving awards and the experience of official. In particular, higher level of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 house income and parents' education have positive effect on the likelihood of students' experience of official.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s, it has static relationship with the awards record and the experience of official in school. In short, students who have higher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background also highly achieved in the extra-curriculum field. Nothing but outside school the awards record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academic achiev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assure the procedural justice, active government support is needed.